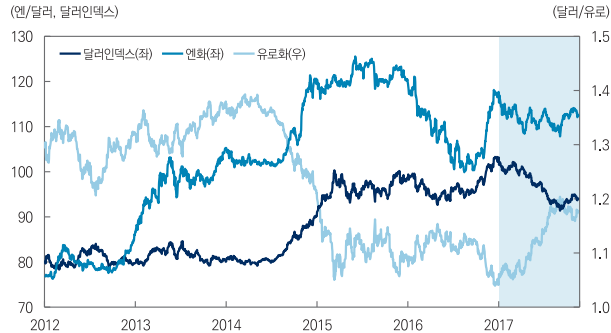


## 4. 외환시장

- 2017년 4/4분기 들어 미달러화는 미국의 경기회복 지속으로 소폭 강세를 보인 반면, 유로화는 유럽지역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약세
  - 신흥국 통화는 경기회복 기조 및 일부 국가들의 정정불안이 혼재되어 국별로 상이한 모습
  - 원화는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 및 대외투자자금 유입증가로 달러당 1,100원을 하회하며 강세를 지속
- 
- 미달러화는 2017년 3/4분기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일시적 약세를 보였으나 4/4분기 들어 미국의 경기회복 및 유럽지역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반등하여 강세 시현
    - 2017년 8월말과 9월초에 발생한 허리케인(Harvey, Irma)으로 인해 주요 경제지표의 일시적 영향으로 달러인덱스는 한때 연중 최저치인 91.17(9월22일)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반등하여 11월 평균 94.34수준을 유지
    - 10월 이후 미국의 견조한 경기 회복과 함께 카탈루냐 독립선언등 유럽지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기인하여 달러인덱스가 소폭 상승
  - 유로화는 2017년 들어 대체로 미달러화대비 강세를 시현하였으나, 최근 유럽지역의 정치적 불안 및 ECB 통화정책 기조 유지 등으로 소폭 약세
    - 유로지역은 2017년 9월중 독일의 총선 및 스페인 카탈루냐의 정정 불안 등을 으로 8월 말 이후 최근(11.21일)까지 1.4% 절하
    - 또한 미국의 보유자산 축소시행계획 발표와 함께 ECB의 보유자산 축소계획의 한도가 기존의 시장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도 유로화 약세 요인
  - 엔화는 일본의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등으로 소폭 절하
    - 주요 선진국에서 보유자산 축소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는 반면 일본은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2017년 3/4분기 이후 최고점인 114.18엔까지(11.1일) 일시적으로 상승
      - 11월 중에는 엔화가 다시 강세로 반전되며 3/4분기 이후 최고점대비 1.5%절상(11.21일)

## 미 달러 인덱스, 일본 엔화 및 유로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신흥국 통화는 2017년중 대체로 미달러화대비 강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경제 회복 속도 및 대외 정치 불안이 혼재되어 4/4분기 들어서는 국별로 상이한 모습

— 2017년중 미 연준 및 ECB의 보유자산 축소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터키, 아르헨티나, 필리핀, 남아공 및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주요 신흥국의 통화는 2017년 11월 21일 기준(전년말대비) 6.5% 이상 절상

• 멕시코, 한국 및 태국 순으로 각각 10.4%, 10.0%, 9.4% 절상

— 터키의 경우 정치적 불안 및 미국, 독일정부와의 관계악화로 연중 10.9% 절하

• 9월 EU 정례브리핑에서 독일 정부와의 관계악화로 터키의 EU가입 불확실성이 언급되었으며, 10월 8일 미국의 비이민비자의 발급 중단 발표로 외교관계 불안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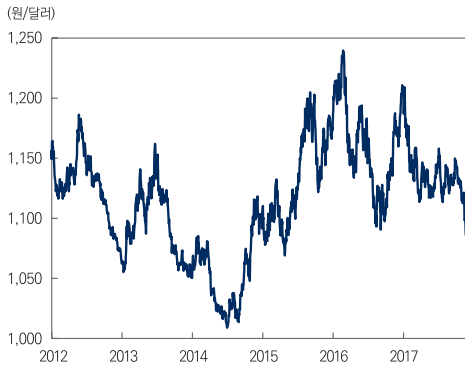
□ 원화는 견조한 경제 성장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으로 큰 폭으로 절상

— 원/달러 환율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증가와 함께 최근 한국과 캐나다간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을 기점으로 절상속도 가속화

• 한국과 캐나다의 통화스와프 협정 시행일(11.15일)대비 최근(11.27일)까지 2.3% 절상

— 원/엔 환율의 경우 9월중 3/4분기 최고점인 1,047.5원까지(9.8일) 절하되었으나, 최근 975.85원(11.27일) 수준으로 7.3% 절상

원/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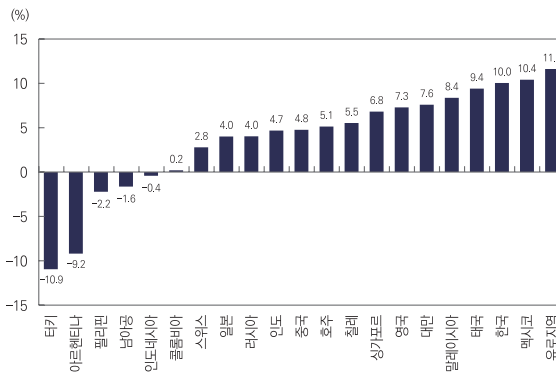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원/엔 환율 추이



주요국 환율의 변화율



주 : 2016년 12월말대비 2017년 11월 21일 기준 각국 통화의 절상(+), 절하(-)율

자료: Bloomberg

□ 2017년 이후 실질실효환율(REER)은 전체 국가에서 상이한 모습

- 미국 달러화는 2017년 1/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경기 회복 및 목표치를 하회하는 물가수준 등으로 10월말 반등
- 유로존 유로화는 2017년 1/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상승세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10월말 소폭 하락
- 영국 파운드화는 견조한 경제성장 및 soft brexit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영국 및 EU간 정책적 협상 결렬(10.9일)로 상승세 둔화
- 일본 엔화 및 스위스 프랑은 2017년 2/4분기 소폭 상승한 이후 최근까지 하락세 지속

주요국 실질실효환율(REER) 추이 (2010 = 100)

	2015	2016				2017			
		1/4	2/4	3/4	4/4	1/4	2/4	3/4	10월
중국	130.3	128.6	123.0	121.2	122.8	120.4	118.8	121.15	121.36
한국	109.5	106.8	107.2	112.8	110.4	114.6	112.4	109.83	110.54
영국	116.0	108.1	106.9	99.3	99.3	96.8	97.7	98.04	98.24
스위스	109.1	108.9	109.5	108.6	108.2	108.7	108.8	104.52	103.50
미국	114.0	113.0	113.6	113.6	118.8	116.6	113.9	109.91	111.70
호주	88.9	90.2	88.7	91.2	92.4	94.7	91.9	94.68	93.39
유로존	90.6	91.5	92.0	91.8	90.5	90.0	92.4	94.95	94.58
일본	71.6	76.1	81.5	83.8	76.1	76.5	76.7	74.60	74.09

주 : 기간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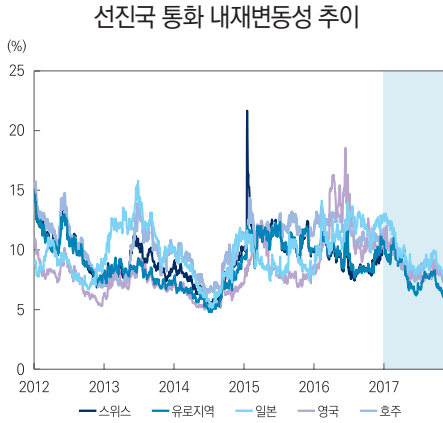
자료: BIS

#### □ 2017년중 주요 선진국 통화의 내재변동성(implied volatility)은 안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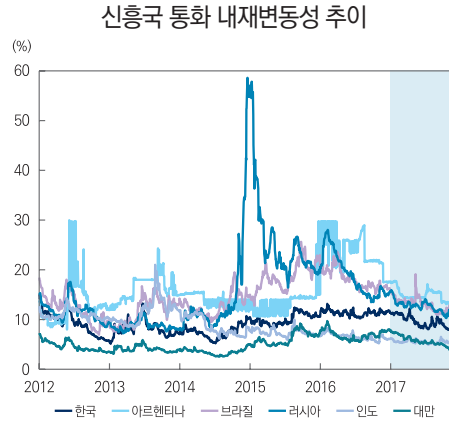
- 스위스 프랑의 내재변동성은 유로화 강세 등으로 2017년 2/4분기 이후 최고점인 8.89(9.8일)까지 상승하였으나, 4/4분기 들어 하락세 전환하여 11월 평균 6.65수준
- 유로화의 내재변동성은 독일 총선(9.24일)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9월중 8.31(9.25일)까지 상승하였으나 4/4분기 이후 하락세 지속하며 11월중 전분기말대비 1.15%p 하락(11.21일)

#### □ 신흥국의 경우 러시아 및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안정세 지속

- 러시아 루블화는 2017년 들어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며 연중 최저점인 10.30(10.26일)까지 하락 후 반전
- 원화의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로 2017년 3/4분기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4/4분기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10월) 및 캐나다와 통화스와프 체결(11월)에 따른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로 전분기말대비 1.75%p(11.21일) 하락



자료: Bloomberg



연구위원 주현수 (02-3771-0837, joo@kcmi.re.kr)

연구위원 이정은 (02-3771-0626, jelee@kcmi.re.kr)

## 외환시장 주요 이슈: 캐나다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계약 체결

- 금년 11.15일 한국은행과 캐나다중앙은행은 원화/캐나다달러화 통화스왑계약을 체결
- 양국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하여 유동성을 공급하여 금융안정을 도모
  - 캐나다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은 상설계약(standing agreement)으로서 사전에 금액한도 및 만기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

## 한국은행의 통화스왑 현황(2017.12월 14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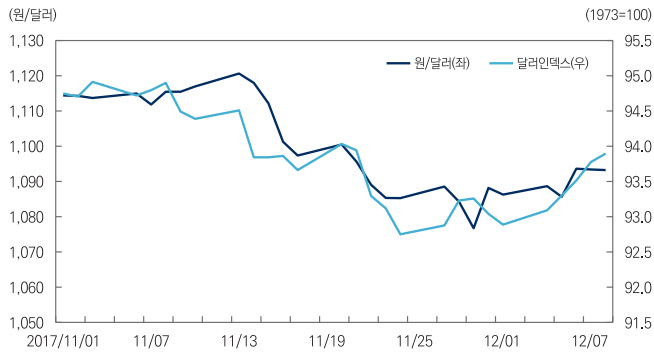
상대국	통화스왑 규모	만기일정
캐나다	무제한	무기한
중국	560억달러	2020년
UAE	54억달러	2016년(연장협상)
말레이시아	47억달러	2020년
호주	77억달러	2020년
인도네시아	100억달러	2017년(연장협상)
CMIM	384억달러	없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통화스왑은 외화 유동성 경색에 대처하기 위해 주로 이용되었으며, 2010년 5월 들어 선진국 중심의 기축통화국들간에 통화스왑이 이루어진바 있음
- 기축통화는 미달러, 유로, 영국 파운드,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일본 엔 등 6개 통화를 의미하며, 2013년 10월 기존 통화스왑을 상설화하기로 합의
  - 그러나 한국, 싱가포르,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은 통화스왑 대상에서 배제

□ 한국이 기축통화로 평가받는 캐나다달러화와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화가치는 단기적으로 큰 폭 상승

- 기축통화국과의 통화스왑 체결로 외환부분의 안정성이 강화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1.13일 1,120.7원에서 11.16일 1,101.3원까지 하락
  - 동기간 중 미국 세제개혁안 연내통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달러화 가치도 소폭 하락(0.7%)하였으나 원화의 가치상승(1.7%)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
- 통화스왑 체결 이외에도 경상수지 흑자 지속, 3분기 경제성장률의 예상치 상회, 북핵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등도 원화 가치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통화스왑 체결 전후 원/달러 추이



자료: Datastream